

유럽과 중국의 디지털카메라 시장동향

- 디지털 이미징 컨퍼런스 2002 -

출처 : Photo Market 2003. 1

시장조사 및 컨설턴트기관인 임포트 렌즈사(미국)와 GSM(일본)은 지난 2002년 12월 10일 동경 신쥬구 게이오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이미징 컨퍼런스 2002'를 개최했다. 임포트 렌즈사로부터 유럽과 세계시장의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을 토대로한 디지털 포토 프린트 시장이나 디지털 이미징 기계에 대한 시장동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GSM사로부터는 최근 큰 발전에 이어 새로운 대규모 시장으로서 기대되는 중국의 디지털 이미징 시장에 대한 최신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2007년까지 디지털 카메라 세계 성장률 16%

세계시장의 필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합친 출하대수는 2001년이 전년 비 2.4% 증가한 8,400만대이고, 2002년은 디지털카메라가 28%, 필름카메라 72%의 비중으로 총 8,600만대가 예상된다. 그 중 디지털 카메라(1,000달러 이하 같음) 출하대수는 2001년의 1,851만4,000대로부터 2002년 2,413만2,000대이고, 2007

년까지 디지털 카메라 성장률은 16%로 예측되어 5,135만8,000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카메라 메이커별 시장 비율로 보면 소니가 15~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올림피스로서 13~15%, 후지필름이 12~14%, 캐논이 11~13%, 코닥이 6~8%, 니콘이 5~7%, HP가 4~6% 등의 순이다. 매출액은 2001년의 72억1,500만 달러로부터 2002년에는 86억5,700만 달러로 예상되고, 2007년까지 성장률이 6%를 유지하여 1,180억9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카메라에 탑재하는 CMOS센서는 2M 이내가 100달러 시장 이하로 채용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신모델 등, 일종의 화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100~1,000달러시장에는 채용되지 않

지만 2003년에는 고해상도의 것이 탑재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카드는 SD나 XD카드 등 초 콤팩트 타입이 침투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때 무료 메모리 카드를 증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다.

미국시장의 필름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합친 출하 대수는 2001년에 2,600만대로 2002년에는 디지털카메라 34%, 필름카메라 66% 비율로 총 2,800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카메라 출하대수는 2001년에 749만6,000대에서 2002년에는 950만5,000대에 이르고 2007년까지 성장률 15%로 예측되어 1,870만9,000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카메라의 시장을 살펴보면, 역시 소니가 26~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올림퍼스 14~16%, 캐논 10~12%, 코닥이 10~12%, 후지필름 8~10%, 니콘 6~8%, HP 5~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매출액을 보면 2001년에 28억3,400만 달러에서 2002년에 31억9,000만 달러, 2007년까지 성장률 3%를 유지하여 36억8,3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전체 60%로 되었는데 인터넷세대의 디지털카메라 소유자가 45%를 차지한다. 현재 TV에 디지털 카메라의 CM이 자주 방송되어 일반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지금 가장 갖고 싶은 아이템으로서 DVD플레이어에 이어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출 수 있도록 디지털 포토 피니싱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시장의 디지털 카메라 출하대수는 2001년에 445만 4,000대로부터 2002년도에는 640만7,000대에 이르고 2007년에는 성장률 17%로 예측되어 1,405만3,000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살펴보면 올림퍼스가 가장 많은 17~1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후지필름 14~16%, 캐논이 12~14%, 코닥이 10~12%, SONY 10~12%, HP 7~9%, 니콘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보면 2001년이 20억6,100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26억9,200만 달러, 2007년까지 성장률은 8%를 유지하여 40억8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미니랩 2002년 20% 비율로 성장

세계시장에서 미니랩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은 12%,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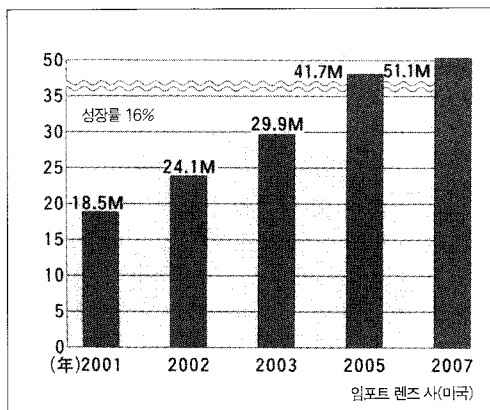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카메라 출하대수 예측(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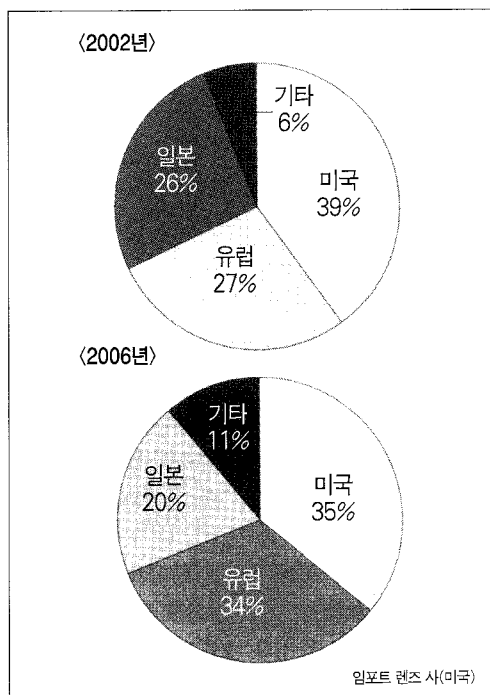


그림 2. 디지털카메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년에 20%, 2004년은 31%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최신기기에 의해 사진점은 비지스카드나 캘린더, 프린터서비스를 호조로 수주하고 있다. 판매되는 디지털 미니랩의 절반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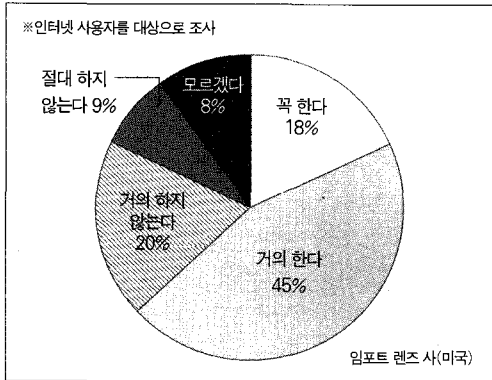


그림 3. 사진점에서의 디지털 프린트 의향(동시 프린트와 같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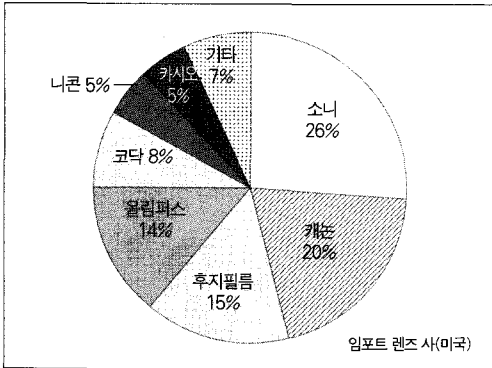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시장의 카메라별 시장동향(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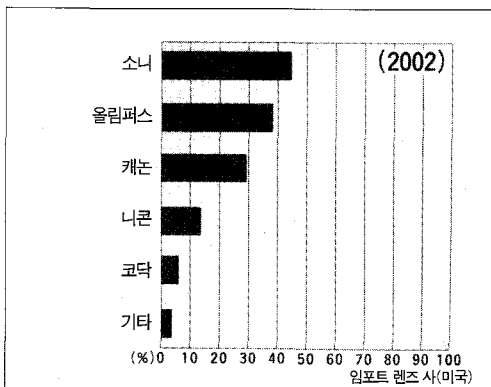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시장의 구입희망 디지털카메라 브랜드(2002)

키오스크 단말기가 붙어있다. 키오스크 단말기는 디지털 사진의 주문을 용

이하게 하고 일반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키오스크기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수 년후에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도 디지털카메라 사용자의 증가로 이 기기의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 싱가포르,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등에도 도입이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한편,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사진점에서 필름의 프린트와 같은 가격으로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프린트를 할 수 있다면 주문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18%가 '꼭 한다' 라고 답했고, 45%가 '거의 한다', 20%가 '거의 하지 않는다', 9%가 '절대 하지 않는다', 8%가 '모르겠다' 로 답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는 초기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에게 한해서 사진점에서 프린트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 그런 추세는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진점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데이터를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용자가 알지 못한다는데 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 현황

중국의 2001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판매대수로 20만4,000대, 판매금액은 8억5,500만원(약132억22백만엔) 이었고, 2002년은 58만3,000대로 판매금액은 1,728백만원(약258억16백만엔) 이었다. 화소별 대수 분포를 보면 2002년에는 100~199만 화소가 20%, 200~299만 화소가 35%, 300~399만 화소가 28%, 400만 화소 이상이 17%로 나타났다. 또한 금액비중을 보면 100~199만 화소가 8%, 200~299만 화소가 27%, 300~399만 화소가 37%, 400만 화소 이상이 28%순으로 나타났다.

인기 브랜드는 소니

2002년 브랜드별 분포를 보면 소니가 23%, 캐논 21%, 후지필름 12%, 올림퍼스 12%, 레전드 9%, 코닥 6%, 카시오 4%, 니콘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경로로는 IT(PC, 프린트 판매점), 사진점, 일반 상업점(가전을 취급하는 판매점이나 백화점 등의 카메라 전문 카운터) 등으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사진점에서도 최근에는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북경 시내에 학생 및 샐러리맨 1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구입하고 싶은 화소수는?」이라는 질문에 46%가 300~390만 화소, 37%가 200~299만 화소, 14%가 400만 화소로 응답하고 있다. 「구입하고 싶은 브랜드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소니가 44%로 압도적이고 다음이 올림퍼스, 캐논, 니콘, 코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소수로 보면 2000년에 100만 화소가 주류를 이뤘으나 2001~2003년까지 200만 화

소, 2004년에는 300만 화소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학렌즈는 저가기종의 경우 고정렌즈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기종을 보면 2001년 5~6배 줄어 주류였으나, 2003년에는 8~10배줄어 메인인 될것으로 보인다.

늘 곁에 있어 소홀하지는 않으십니까?

‘광학세계’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유일한 전문지로 태어난지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지원과 보살핌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학세계’는 부족하나마 광산업 각 분야별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신기술을 소개하고 학계 및 연구계와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만들면서 광학인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분의 관심이 부쩍 줄어 안타깝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혹시 너무 오랫동안 쉽게 접할 수 있는 ‘광학세계’ 오히려 소홀하지는 않으신지요? 독자여러분의 우송료 납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하나, 우송료 12,000원을 내주세요	둘, 원고 투고를 기다립니다.
<p>‘광학세계’는 1년 우송료 12,000원 외에 따로 책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정기구독자가 우송료조차 납부하지 않는 ‘무료 독자’입니다.</p> <p>‘광학세계’는 순수하게 광고비로만 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고도 급격히 줄어 우송료마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p> <p>우송료 납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입금후에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 <p>입금계좌 : 국민은행 084-01-0156-856 예금주 : 한국광학기기협회</p>	<p>‘광학세계’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원고 기고, 기획 제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기고-논문, 국내외 신기술·동향, 전시회 참관기, 연수기, 수필 등 2. 추천-모범사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달의 광학인’에 선정,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3. 기획 제안-원고 내용이나 편집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광학세계」편집부

주소 : (137-842)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커뮤니티빌딩 4층 한국광학기기협회

전화 : (02)581-2321/팩스 : (02)588-7869/이메일 : pjy@koia.or.kr